



大學圖書館의 進路

李 鳳 順

우리나라 圖書館界가 活潑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 事實이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은 그 數에 있어서나 活動에 있어서 어느 程度 發展을 보여주고 있다고 生覺된다.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이 必要하다는 것은 再三 말할 必要도 없는줄 生覺한다. 特別히 大學에 있어서는 圖書館이 導問하는 이들의 心臟役割을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 大學內에 있어서 그 霧靄나 導風을 새우는데 얼마나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能히 斟酌할 수 있다. 圖書館은 벌써 冊보다 사람을 相對로 하고 「서비스」를 中心으로 해야만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도 몬자와 公廣내 나는 書庫에 資料를 死藏하는 것으로서 그 任務를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를 살펴볼때 아직 建設段階에 있는 關係로 해 놓은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그런面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의 希望과 前途가 洋々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當面한 問題는 이루 해야 할 수 없으나 筆者가 그 方面에서 일하면서 느낀 바를 여러 會友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붓을 들었다. 實로 어느 면을 먼저 건드려야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중 몇가지만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다. 첫째는 大學圖書館 資料問題, 둘째는 參考事務, 마지막으로 圖書館의 實務를 担當하고 있는 圖書館人들에 對한 所感을 말해 보고 싶다.

몇몇 大學을 除外하고는 어느 大學이나 다 같이 大學設置基準令에 依한 藏書數의 不足으로 苦痛을 받고 있다. 政府의 方針에 依하여 步調를 맞추는것도 역시 大學圖書館의 한낱 使命이라 하겠다. 그러나 初創期에있는 大學에 無理한 數字를 要求하면 모든 面에 遜고와 浪費를 갓어오기 쉽다. 四年制大學(單科)에서 BA(學士)를 授與하기 爲하여 必要로 하는 書籍이 大略 5000卷 程度면 急한 本은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綜合大學에서는 大學單位로 均等한 數字를 配定하면 될것이다. 勿論 特殊大學이나 學生數에 따라 여러卷씩 같은 冊이 必要할수도 있거만 그것은 圖書館에서 技術的으로 적은 類의 冊으로 갓이므로 많은 學生이나 先生님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方法도 講究할 수 있는 問題라고 본다. 大學이나 科別로 差가 있는 것은 勿論이나 于先 그 大學에 꼭 必要한 書籍 5,000卷 程度만이라도 確保하면 될줄 믿는다. 이 5,000卷속에는 教養이나 趣味를 爲한 書籍은 勿論 包含되지 않는다. 純全히 學術的인 書籍을 意味한다. 위에 말한 數字는 勿論 大學院도 包含하지 않는다. 大學院은 그야말로 無限界의 分野라고 볼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이 研究中心이라 數에 있어서 限界도 없거니와 어떤 制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四年制大學일 境鑑에는 研究과기 보다는 앞으로 研究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 方法을 가르치는데 不過하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關係者들과 圖書館人들은 서로 緊密한 連絡을 取하고 制限된 豫算에서 擘부로 사드릴것이 아니라 各科目에 對한 基本目錄을 만들어 놓고 그 目錄에 依하여 全體的인 藏書의 數를 느려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것이다. 아무 計劃없이 亂어놓고 數만 느려가면 豫算의 浪費와 藏書의 均衡을 잃기 쉽다. 그러므로 科目單位로 그 科程에 必要한 基本目錄을 만들어 担當教授도 가지고 있고 圖書館에서도 갓고 있어서 서로 連絡하고 年次計劃을 세운다

던가 또 어느 機關에 寄贈을 要求할때도 그 目錄을 보내서 받도록 努力하는 것이 賢明한 일이 아닐까 한다. 되어놓고 數字만 生覺한다던가 古書店을 송두리채 冊지와 함께 사드리는 일같은 것은 學校의 立場으로서나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到底히 容怒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점은 當局이나 行政者들도 充分히 考慮해 주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參考事務에 關하여 몇마디 하고 싶다. 어느 圖書館이나 다 必要하지만 大學에 있어서 더욱 그러 하다. 아직 이 方面에 注力하고 工夫한 圖書館人이 없어서 大學마다 다 그 事務를 取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參考事務야말로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첫째는 參考資料에 對한 豊富한 知識이 必要하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人品이 있어야 한다. 學問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에서 實사 資料는 備置해 놓고도 옳게 利用하는 方法을 說明해 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資料는 그야말로 死藏이 되는 수 밖에 없다. 적어도 大學圖書館에서는 그 大學의 圖書館人中의 한사람을 이 方面에 보내서 工夫하도록 해야 할 줄 믿는다. 編目이나 分類만이 圖書館事務의 全部로 알아서는 큰 失手라고 본다. 되려 앞으로 大學圖書館은 全的으로 參考事務에 置重하지 않으면 아니될 時期가 올 것이다. 圖書館은 讀者를 相對로 하는 곳이다. 編目法이 이러니 저러니 分類表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特殊圖書館人 몇사람의 問題이지 一般利用者들에게는 何等의 關心事가 될수 없다. 一部 圖書館人들이 그 問題만 가지고 애를 쓰고 정말 「서비스」를 無視하고 있는 傾向이 있는 것은 섭섭한 사실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大學圖書館人들의 資格이나 質的인 問題에 對하여

言及하고 싶다. 이 問題는 아직 時期尙早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직 우리 나라 圖書館 學校卒業生이 나지도 못했는데 質이나 資格이니를 問題視할 수 있겠는가. 疑心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現役 圖書館人이 全國에 700名이나 되고 보면 이것도 적은 問題는 아니다. 筆者는 圖書館學校卒業生이라야만 資格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勿論 아니다. 그러나 몇해 동안 圖書館人들 속에서 지나 보면서 느낀 것은 圖書館人이 아무나 또 그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學校에 다녀야만 工夫하는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自身이 卽先해서 圖書館人이 되도록 努力하는 것 보다는 되려 남의 닦만 하는 분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圖書館界人材가 드문것을 利用하여 自己 實力이나 力量을 過度 評價하여 一躍 國寶的인 存在라고 自處하고 있는 분도 있다.

앞으로 圖書館學校가 發展되고 實力있는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自然 없어지게 될줄 믿으나 寒心스런 때가 많다. 自身의 두발을 땅위에 믿음직하게 딛지도 못한채 指導的인 立場만 固執하는 것도 圖書館界를 爲 하려서는 섭섭한 일이다. 언젠가 初創期에는 그리하듯이 우리 圖書館界에서 일하는 분들도 조금하다. 그러나 年輪과 아울러 꾸준한 努力이 必要하다. 어찌 눈에 보이는 당장에 손에 쥐는 일만이 成長이고 發展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圖書館界는 길게 먼 將來를 내다보며 한거름 한거름 무겁게 걸어나가는 圖書館人을 要求하고 있다.